

지역 소식통

완주, 신규 전원마을 조성
대상자 공모 절차 돌입

완주군이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완주군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5호 이상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마을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사업비를 지원한다. 삼례·봉동·용진·이서 등 중앙생활권은 호당 2,000만 원 이내, 상관·소양·구이 등 남부생활권은 호당 3,000만 원 이내,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북부생활권은 호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공모문을 토대로 구비 서류와 함께 완주군청 지역협력과 농촌개발팀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5일 2024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 원인,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를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5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산문화복지센터 탈바꿈 시도

총 1억6000만원 들여 주민 소통·휴식 공간 리모델링

지역 문화·여가 중심지로 자리 잡은 금산문화복지센터(금산면장 이승곤)가 이달 초부터 2개월간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기대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약 1억6,000만원으로, 현재 2층에 위치한 카페를 1층으로 이전해 휴게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출입문 추가 설치 및 건물 외벽 일부를 유리로 교체해 심미성 향상과 개방감 확보로 편안하고 안락한 카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산문화복지센터 조감도. <사진=김제시청 제공>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센터 활용 공간 조정 및 효율적인 공사 진행으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산문화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되어 현재는 금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영숙)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헬스장, 생활체조, 노래교실, 서예 등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8개)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서 선진지 방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이승곤 금산면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금산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 문화여가, 주민편의 등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시니어클럽과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센터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다.

완주 노인일자리 활성화 '맞손'

완주시니어클럽,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완주시니어클럽(관장 최명선)과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센터(센터장 최등원)가 손잡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했다. 지난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두레유통'은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내 전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처리 제품 생산, 농산물 수급부터 전처리 공정, 완제품 유통까지 전 단계의 안전성 확보, 기타 지원시설의 운영 및 유

지 관리를 위한 상호 교류를 진행한다. 최명선 완주공공급식센터장은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선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완주군 공공급식사업에서 시니어들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 도시 100인 오픈포럼 연다

20일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안된 정책 행정에 반영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100인 오픈포럼을 연다. 오는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는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70명), 보호자(20명), 관계자(10명) 등 총 100여 명이 모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오픈포럼답게 해당 분야 권위자나 전문가 몇 명이 주도하는 기존의 포럼

과는 다르게 위탁별 토론, 정책발굴, 시사점 도출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주제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6가지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이다. 행사에서 제안된 정책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2025~2028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픈포럼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

군민도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에서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오픈포럼을 통해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완주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jfc>)를 참고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만경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 유원지 지정

서부권 관광 활성화 기대

김제시 만경능제저수지 일부 구역이 유원지로 지정되며 서부권 관광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만경읍의 능제저수지 일부구역(41만5,591㎡)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결정)했다. 만경능제저수지는 섬진강의 물을 퍼

올려 담수하는 담수호로 지난 1930년 동진농조(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축조한 저수지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상체험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여가·휴양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개념의 농업·문화 복합 관광지 육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만경능제

의 유원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회 지정(결정)되는 결실을 맺게됐다.

만경능제 일원에 유원지 개발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웰빙·복합형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수변경관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개발, 자연친화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변 생태경관지원을 활용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여가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찬준 부시장, 김제시 청년 로컬 현장 방문

죽산면 삼거리, 폐양조장 등 청년마을, 생활인구 활력 방안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 이찬준 부시장이 죽산면 죽산삼거리에 정착한 청년창업가와 죽산면의 미래구상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러 현장소통에 나섰다.

지난 4일 이 부시장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이날 청년들이 불러온 죽산면 지역의 변화를 둘러보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자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 방문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이 부시장은 청년들과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고, 죽산면 청년들의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는 올해 청년정책에 5개 분야(일자리, 창업, 교육·문화, 주거·복지, 청년주도) 총51개 사업 93억원 예산을 들여 청년들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용기있는 도전을 펼쳐 김제시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길 기대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이번에 함께한 청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좋은 정책들을 위한 영감을 얻고 간다"면서 "시가 청년들에 특화되어 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죽산면 청년단체는 올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